

<15.10월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참고자료②>

## 「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」 수립 추진

### 1 추진 배경

□ 2000년대 이후 한국 보험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세계 8위 보험시장으로 도약하며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 담당

- \* 14년말 보험권 자산 862조원(은행 2,558조원), 종사자 44만명(은행 12만명)
- \* 14년말 기준 자동차보험 약 2천만대 계약, 실손의료보험 약 3천만명 가입 등

□ 그러나 상품개발·자산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적 규제에 의해 양적 경쟁에 치중하면서 질적 성장은 근본적 한계에 직면

- 불완전판매·보험사기 등으로 사회전반의 부정적 인식도 확산

□ 그 결과 여타 금융업종과 달리 시장점유율 순위가 그대로 유지·정체되는 등 보험산업내 시장 경쟁과 역동성 결여

- \* 생보 : (05) 삼성(33%)/한화(17%)/교보(16%) → (14) 삼성(28%)/한화(14%)/교보(12%)
- \* 손보 : (05) 삼성(30%)/현대(15%)/동부(14%) → (14) 삼성(27%)/현대(17%)/동부(15%)
- \* 은행 : (05) 국민(16%)/농협(11%)/우리(11%) → (14) 국민(13%)/우리(12%)/신한(12%)

- 아직까지 ‘국제보험그룹(IAIG)’에 해당되는 국내 보험회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배양 미흡

□ 이러한 문제인식하에, 금융당국은 15.5월부터 「민관합동 TF」를 발족하여 업계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(5~9월중 총20회 회의개최)

※ 동 TF에서 수렴한 개혁과제

- ① 현장점검반 : 보험회사 현장방문을 통해 총 896건 건의 수렴
- ② 금융개혁자문단 : 보험업 개혁자문단 총 52건 건의 제시
- ③ 보험업계 : 협회·개발원·연수원 등을 통해 업계의 총 283건 건의 수렴

## 2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내용

◇ 고비용 판매채널 확보에 치중하는 “양적 경쟁”을 지양하고 새로운 상품·서비스 개발을 통한 “질적 경쟁”에 주력

\* “경쟁 촉발 → 다양한 新상품·서비스 공급 → 소비자 선택권 제고 → 보험산업 질적 성장”의 선순환 기반 마련

### 가.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

①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(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신고)

\* 14년중 사전신고 1,525건 → 약 400건으로 축소(약 70%↓)

\* 총 상품개발건수(14년기준 8,100건)의 5%(400건)만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

②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표준약관제도\* 전면 재정비

\* 현재 생명/손해/질병·상해/자동차/실손의료 등 10개의 표준약관 운영중

◦ 소비자 등에 미칠 파장이 큰 실손·자동차보험을 제외한 8개 표준약관은 ‘17년초까지, 나머지는 ’18년초까지 단계적 자율화

③ 현행 감독규정 등에서 규제하는 복잡한 상품설계기준\* 대폭 완화

\* 장해등급별 보험금 지급규제 등 총 8개부문 규제 개선사항 검토

④ 보험상품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 책임 강화

\* 현재 법규위반시 상품변경권고만 시행되나, 향후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

⇒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되는 등 질적 경쟁 촉진 기대

## 나.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

- ① 타업종이나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보험상품 가격 통제 장치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
    - 위험률 조정한도 및 할증한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
    -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이자율 (표준이자율, 공시이자율 등)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자율화
  - ②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보완방안 추진
    -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여 과급효과가 큰 실손의료보험·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
    -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보험료 비교·공시 확대 등
      - \* 생·손보험회가 산출하는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전면 개방
- ⇒ 고비용 채널을 통한 획일화된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, 다양한 위험보장상품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경쟁하는 시장풍토 조성

## 다.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

- ①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적·직접적 통제 → 사후적·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
    - 현재 사전적으로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(단,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규제는 유지)
    -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\* 전면 개편
- \* (예) 불명확한 운용규제 간소화, 외화자산 투자범위 및 헷지목적 운용규제 완화 등

②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,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 허용

③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, RBC 제도 강화 등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

⇒ 자산운용 수익률 향상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기대

## 라. 판매채널 전면 혁신

① 불완전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·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·설계사에 대한 규율 강화

\* (예) 보험대리점에 3개이상 상품설명 의무 부과, 부당수수료 수취금지 규정 신설 등

② 대형 법인보험대리점(GA)의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을 통해 상품 판매에 대한 권한·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·감독 강화

\* (예) 보험회사에 준하는 자본금, 인력·설비, 임원·대주주 자격요건 및 불완전 판매 배상책임 부과 등

⇒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실판매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규율 확립

## 마.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

① 핀테크 시대에 부응하여 종전 아날로그적 규제를 일제 정비

- 기존의 대면가입방식에 맞춘 보험가입 절차를 온라인 환경에 맞추어 대폭 간소화\*하고, 잔존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

\* [현행] (권유단계) 상품설명서/가입설계서 → (계약체결단계) 청약서/약관 → (승낙 이후단계) 증권 → [개선] 1~2장 분량의 통합가입자료 서명으로 완료

- 보험산업에 다양한 핀테크 기술 접목을 적극 유도

\* (예) ①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허용, ②실손의료보험 등 소액 보험금 청구가 많은 상품의 청구·지급 절차 전산화 등

## ② 선진국 수준의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험 회사의 종합 리스크 관리역량 확충 유도

- \* (예) ①기업 위험보장 상품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자율화하여 다양한 상품 출현 유도, ②일반손해보험에 주력하는 보험회사 신규진입 허용 등

### 3 향후 추진계획

- 현재 다양한 현장 목소리 및 전문가·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「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(2015~2017)」을 마련중
  - 10월중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, 금융 개혁회의를 통해 확정·발표할 예정
- 「로드맵」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은 보험산업 및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에 따라 시행시기 및 방식을 단계적으로 차별화하여 추진
  - 원칙적으로 시행령/감독규정 등 개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(10월중 입법예고 → 16.1/4분기 마무리)하되,
  -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거나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정교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추진
- 「로드맵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우리 보험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 - (i) 유사한 상품의 판매채널을 통한 “양적 경쟁” → 혁신적인 새로운 상품·서비스를 통한 “질적 경쟁”으로 전환
  - (ii) 종전 연고 중심의 상품구매 → 다양한 상품·서비스 출현에 따라 소비자들도 꼼꼼하고 정확한 “상품 비교·선택” 노력 필요
  - (iii) 사전적인 직접 통제 →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면서 사후적으로 결과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는 감독방식으로 변화